



포이에마[예수교회]

가정예배 순서지

2026. 8월 둘째 주 (1)



나의 안에 거하라

찬양 | 나의 안에 거하라

기도 | 하나님, 오늘도 우리 가족이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. 익숙한 마음으로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해 주세요.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정직하게 귀 기울이게 해 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

말씀 읽기 | 이사야 22:12~14

✦ 하나님은 백성에게 돌이키라고 부르셨지만, 사람들은 오히려 먹고 마시며 즐기만 했어요.

[개역개정] ¹² 그 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 털을 뜯으며 굵은 베를 띠라 하셨거늘 ¹³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¹⁴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

[쉬운성경] ¹² 그 날에 주, 곧 만군의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슬피 울고 머리를 밀고 거친 베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다. ¹³ 그러나 보아라. 오히려 백성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. 소와 양을 잡고, 고기와 술을 마셨다. 그러면서 말하기를 “내일이면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”라고 하였다. ¹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. “이 죄는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한다.” 주, 곧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.



질문나눔

1. 12절에서 하나님은 백성에게 무엇을 하라고 부르셨나요?
몇 가지가 나오는지 찾아봐요.
2. 13절에서 백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나요?
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나요?

삶의 이야기

1. 누군가 나를 위해 해준 말인데, 듣기 싫어서 못 들은 척한 적이 있나요?
(부모님, 선생님, 친구의 말 등)
2. 지금 내가 못 본 척 미루고 있는 일이 있나요?
(해야 할 일, 사과해야 할 일, 고쳐야 할 습관 등)

축복 | **하나님은 오늘도 ()이/를 부르고 계셔.**
그 부르심에 귀 기울이는 사람으로 자라가길 축복해!

마침기도 | 하나님,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못 들은 척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. 우리 가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미루지 않고 정직하게 돌이키게 해 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

1.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소리 내어 **2번** 읽습니다.
2. 말씀이 마음에 남도록 천천히 눈으로 **1번** 읽습니다.
3.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정은 쉬운성경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.



포이에마[예수교회]

가정예배 순서지



주님은 너를 사랑해

찬양 | 주님은 너를 사랑해

기도 | 하나님, 이 시간 우리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마음이 바쁜 사람들에게는 쉼을, 지친 사람에게는 평안을 주세요.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

말씀 읽기 | 이사야 25:2~4

❖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며, 그분이 약한 사람에게 어떤 분이 되어 주시는지를 고백하는 노래예요.

[개역개정] ²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³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박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⁴ 주는 포박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의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

[쉬운성경] ² 주께서 성을 폐허 더미로 만드시고, 성벽으로 둘러싸인 마을을 무너뜨리셨습니다. 적들이 굳건하게 지은 성이 사라지니, 그들이 결코 다시 짓지 못할 것입니다. ³ 그러므로 강한 나라 백성이 주님을 섬길 것이며, 잔인한 나라들이 주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. ⁴ 주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십니다. 주님은 폭풍을 피할 피난처가 되시며, 뜨거운 햇볕을 가릴 그늘이 되십니다. 잔인한 사람들이 폭풍처럼 성벽을 몰아치고,



질문나눔

- 2절에서 견고한 성은 어떤 상태가 되었나요?
그 성이 다시 세워질 수 있나요?
- 4절에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개 나와요.
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찾아봅시다.

삶의 이야기

- 무더운 여름 더위를 피해 그늘로 들어갔던 기억이 있나요? 그때 어땠는지 떠올려봅시다. 하나님이 그런 그늘이 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?
- 요즘 내 마음에 몰아치는 '폭풍'이 있다면 무엇인가요?

축복 | **하나님은 폭풍이 몰아칠 때 피난처가 되시고
뜨거운 별 아래 그늘이 되어 주시는 분이야.**

()이/가 힘든 날을 만날 때마다 그 품으로 달려가길 축복해!

마침기도 | 하나님,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 표현으로 노래한 말씀을 읽었습니다. 우리 가족이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피난처요 그늘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세요. 각자 마음에 있는 어려움을 주님께 맡겨 드리며,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

-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소리 내어 **2번** 읽습니다.
- 말씀이 마음에 남도록 천천히 눈으로 **1번** 읽습니다.
-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정은 쉬운성경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.